

발제문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에 관한 학술적 고찰

판은쉬(範恩實)¹⁾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위원

현재 몇 가지 역사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동아시아 각국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학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견해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소위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는 비정상적인 일면이 존재한다. 이 중 일부는 학술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설사 학술적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학술적 범주를 크게 넘어서기도 한다. 일부 갈등 문제는 관련국 간 정상적인 관계 발전을 해치고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이 지역 협력을 전개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황해 주변 정부 간 상호 교류와 평화 발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학술 회의에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을 특별 어젠다로 채택해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빌려 이 문제를 고찰해보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토론해보고자 한다.

소위 역사 인식의 견해차는 주로 학술, 정치, 감정 세 가지 요인이 만들어내지만 문제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동아시아 역사 인식에 대한 견해차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맞춤형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학계에 존재하는 역사 갈등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법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邊境)연구소 동북 및 북부 변경연구실 부주임 겸 부연구위원

첫 번째는 근현대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료(史料)가 충분하고 역사적 사실 관계가 명확해서 기본적인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위 갈등은 주로 학술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인으로 야기된다. 또 이러한 역사 문제는 현시대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워 현재 동아시아 각국 간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일본과 2차 대전 역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기 판단을 토대로 이러한 갈등의 해법은 정치 협상, 민간단체와 전문 학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관련국의 정치적 인도를 확보하면서 교육과 홍보 분야에서 정확한 인식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성과도 거두었다. 일례로 2002년 3월 한중일 3국의 민간단체와 역사학자들이 난징(南京)국제학술회의에서 3국 중고생들이 사용하는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를 공동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학자 23명, 중국 학자 17명, 일본 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공동편찬위원회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외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진술을 해결하였다. 공동편찬위원회는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3국 학자들이 3년여간 각자 고유의 역사적 인식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 공동 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와 2012년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적 2권을 출판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2020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공동으로 편찬한 역사책 심지어 역사 교과서가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각 분야의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그 효과도 시간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비롯됐기에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발전한 정치 토양, 사회풍조에 적당히 존재한다면 갈등을 근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반대하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현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시기로, 사료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만 사료 기재에 쟁점이 존재해 학술적으로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이다. 물론, 이 중에는 학술 이외의 요인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거의 명확하기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또한 연대(年代)가 상대적으로 멀어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도 충분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주요 견해차는 학술적 범주 내에 있다.

일례로 청대(清代) 조중(朝中) 경계선 연구에서 두만강의 원류가 과연 어느 쪽인가에 대한 인식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한중 학계뿐 아니라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청나라에서 국경 조사를 위해 파견한 목극등(穆克登)은 백두산 수원에 일명 ‘목극등비(碑)’를 세웠는데, 이 비는 청대 조중 간 국경 위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리화쯔(李花子) 저서 ‘조중 국경의 형성과 특징-명·청대를 중심으로’에서 명청 시기 조중 국경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풀어 놓았다. 여기에는 압록강, 두만강 경계의 점진적 형성, 백두산 지역 경계의 형성, 1885년[광서(光緒) 11년] 제1차 국경 확정, 1887년(광서 13년) 제2차 국경 확정이 포함된다. 1712년[강희(康熙) 51년] 목극등이 확정한 경계는 천지 동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원류를 경계로, 동쪽으로 흑석구(黑石溝)와 두만강 원류[홍토수(紅土水)]를 경계로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비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두만강 원류까지 물이 없는 지대에 석퇴(石堆), 토퇴(土堆), 목책(木柵) 등을 설치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²⁾ 니이(倪屹) 저서 ‘목극등비 원지(原址) 고증’에서는 조선의 관련 문헌을 분석,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 원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石乙水) 혹은 홍토수이며, 정계비의 최초 위치는 백두산 천지 남쪽 기슭이지 소백산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³⁾ 이들 견해와 달리 천후이(陳慧) 저서 ‘청대 목극등비 최초 위치 및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正源) 고증’에서는 관련 사료 문헌에 따라 두만강 원류의 지리적 외관으로 볼 때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이 소홍단(小紅丹)이라고 간주한다.⁴⁾ 2011년 천후이 저서 ‘목극등비 문제 연구: 청대 조중 두만강 경계 고증’⁵⁾과 리화쯔 저서 ‘명청 시기 조중 국

2) 『헤이룽장(黑龍江) 사회과학』, 2015년, 제2판

3) 『북방문물』, 2012년, 제2판

4) 『청사(淸史)연구』, 2009년, 제4판

5) 중앙편역(編譯)출판사(2011)

경사(國境史) 연구⁶⁾가 잇달아 출판되면서 관련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에 초석을 다져 주었다.

1887년 제2차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은 조중 국경의 토문강(土門江)을 현재 중국 경내의 해란강(海蘭江)으로 봐야 하며, 현재 투먼강(圖們江, 두만강의 중국 명칭)은 두만강이고 토문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란강과 두만강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을 ‘간도 문제’라고 일컫는다. 1887년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이 토문, 두만, 투먼을 하나의 강으로 인정했지만 두만강 원류 분쟁으로 정식 국경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고 ‘간도 문제’에 갈등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한중 주류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고 주요 갈등이 학술적 차원에 존재할 경우 정치적, 감정적 요인이 개입되더라도 작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러한 역사 갈등 문제는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고증과 판단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상기 두 부류와 달리 상기 두 부류 사이에 있어 생기는 역사 갈등이다. 첫째, 이러한 갈등 역시 학술 연구상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달리 이러한 갈등은 주로 ‘사론(史論)’으로 불리는 역사적 서술에서 나타난다. 사론 자체는 소위 ‘견인견지(見仁見智,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다름)’라 연구자의 사관, 역사적 지식, 역사적 재료에 따라, 또 신분지위, 시대배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에 따라 도출하는 결론이 천차만별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 첨예화는 정치적, 감정적 요인의 작용에서 기인하지만 학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정치적, 감정적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평가가 어렵다. 일례로 한중 학계에 고조선, 고구려, 조공/책봉 등 문제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 해소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앞의 두 부류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갈등의 첨예화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기인했더라도 표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의 정치적, 감정적 요인은 학술적 이견과 별개이기에 이러한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최우선

6) 지식산권(知識產權)출판사(2011)

목표를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 맞춰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견이 발생한 학술적 측면부터 손을 대야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론 부류의 이견은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옛말에 ‘문예에 1등 없고, 무예에 2등 없다(文無第一, 武無第二)’는 말이 있다. 어울리진 않지만 역사 연구에 비유해 보자면, 고증은 무예로 간주할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한 사람이 1등이 되는 반면, 문예에 비유되는 사론의 경우 사료에 근거해 의견을 발표하면 누구의 말이 더 뛰어난지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거나 억측으로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되짚어 보자면, 사론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진리가 하나가 아닌 사론의 특징을 이용해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각자의 결론을 조정하여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상호 이해에 도달한다면 갈등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역사 갈등 상황에서 상호 존중, 상호 이해,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남겨둔다), 미래 지향을 제창해야 한다.

상호 존중. 이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사론의 다른 해석이므로 각자의 주장은 학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학술적으로 문제를 다뤄 질의든, 비평이든 학술적인 범주 내에서 실행하되 비학술적인 말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가장 부적절한 행동이다.

상호 이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의 관점을 분석하고 상대의 관심을 고찰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구동존이. 학술적 법칙을 존중하고 관점의 완전한 일치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은 잃지 않음)한다고 했다. 상대방에게 선화할 여지를 주어야 교류하고 토론하여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다.

미래 지향. 넓은 마음으로 불필요한 역사적 부담을 지지 말아야 한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는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으므로 역사를 지역 협력의 토대이자 우의를 다지는 교량으로 삼아야 한다.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에서 학술적으로 출발한다면 ‘격렬한 교전’을 거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우의가 깊어질 것이다.

동아시아는 유가(儒家) 문화의 전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유가 도덕 문화의 정수는 중용이며, 중용의 핵심은 적절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용의 도를 역사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면 갈등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한다.

이러한 교류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술 교류를 강화하면 학술적 사상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각자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적절한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학술적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부류의 모든 문제에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론 갈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중 학계가 모두 주목하는 고구려 문제에는 인식상의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고구려 민족의 기원 문제에서 현재 주류 관점은 문헌 기록에 따라 부여 왕자가 남하해 맥(貊) 지역에 건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내용에 의심을 표하는 학자도 있다. 건국 신화의 범주에 속하고 부여의 건국 신화 상황과 비슷해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부여가 남하해 건국한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구려의 평양 천도 초기 한반도 대동강, 재령강 유역으로 들어온 전연(前燕) 이민 관계 문제도 현재 논란이 분분하다. 덕흥리 벽화고분의 벽화와 묵서(墨書)에 전연 이민과 고구려 정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타나 있다. 심지어 일부 고분의 주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악 3호분의 묘주는 동수(冬壽, 연나라에서 고구려로 망명)인가, 아니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인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이는 또한 고구려 민족의 기원과 역사적 위치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초연구를 심화하려면 국제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연구 역량 확대, 연구 시야 확장이라는 이유 외에 이러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 학계에서 이견이 분분한 역사 문제 자체도 국제성을 갖는다. 예컨대 고구려 문제의 경우, 첫째, 관련 문헌 사료가 한자로 씌어졌기에 사료 해독에서 중국 학자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다. 둘째, 고구려 전성기 때 분포 지역이 지금의 중국, 북한 및 한국 북부의 일부분이어서 고고학적 자료가 3개국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3국 학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조공, 책봉 문제에서도 중국 학계의 중심-변방이라는 시각 외에 한일 등 국가 학계의 변방-중심, 제2의 중심-변방의 시각도 필요하다.

셋째, 학술적 논의 과정에서 핵심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세 번째 부류의 역사 갈등을 고찰하려면 일부 핵심 문제에 대한 연구, 특히 각국 학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역사상 정치 공통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는 일반적 의미의 경제,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이해는 현재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학계의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인식에는 중요한 시각이 존재한다. 즉, 일본학자가 고안하고 후에 한국, 중국 심지어 일부 구미 학자가 보강한 ‘체제론’이 그것이다. 송청유(宋成有)의 조사에 따르면, 고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국제 체계 개념 확정에 관하여, 일본학자 니시지마(西嶋)의 ‘책봉 관계 체제설’, 호리 토시카즈(堀敏一)의 ‘동아시아 세계 체제설’, 타니가와 미치오(谷川道雄)의 ‘고대 동아시아 세계설’, 아베 타케오(安部健夫)의 ‘사방천하설’, 쿠리하라 토모노부(栗原朋信)의

‘내신(內臣)외신(外臣) 예법설’, 후지마 세이타(藤間生大)의 ‘동아시아 세계설’,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清三郎)의 ‘화이(華夷) 질서설’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의 ‘중화제국 조공무역 체계설’, 한국학자 전해종의 ‘조공 제도설’, 미국 한학자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의 ‘중화 세계 질서’, 중국학자 허팡촨(何芳川)의 ‘화이 질서설’, 홍콩학자 황즈렌(黃枝連)의 ‘천조예치(天朝禮治,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의 왕조이고 그곳은 예로써 다스려진다) 체제설’, 타이완학자 장치송(張啓雄)의 ‘중화세계제국 체계설’ 등 관련 학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⁷⁾

현재 학계의 연구로 볼 때 ‘체제론’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중국의 적극적인 운영 하에 형성된 ‘체제’, ‘체계’, ‘질서’ 나아가 ‘권(圈)’을 고대 중국지역 패권주의의 발현으로 간주하며, 이를 현재 중국굴기(屈起) 후의 발전 방향에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실질적 의미를 부정한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형식일 뿐 중국의 정치 통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관점은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서방의 식민체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동아시아 세계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중국학자는 “조공을 바치면 화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동아시아 조공 체계는 서방의 식민주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식민주의국가가 아니며 주변 지역을 식민지로 구분하여 식민통치를 벌인 적이 없다. 양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조약의무를 지는 정치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명대 이후 형성된 ‘종번(宗藩, 종주국과 번속국)제도’ 또한 서방 식민주의 체계의 종주국과 보호제도와는 구별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번속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조공관계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중국은 더 많은 답례를 통해 이를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의 통상과 문화 교류로 바꾸었다.”고 밝혔다.⁸⁾ 또 다른 학자는 “중국은 전통적

7) 송청유(타이베이), 『동북아 전통 국제 체계의 변천-전통적인 중국과 주변국 및 민족의 상호관계 평론』,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정치외교팀(2002), p.2-3

8) 위정량(俞正梁) 외,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관계』, 푸단(復旦)대학출판사(2000), p.7-8

으로 특유의 ‘덕을 존중해 무력을 억제하고 덕으로 남을 설득시킨다(尚德抑武, 以德服人)’는 관점으로 주변 국가 및 민족과의 관계를 대해왔다. ‘덕으로 사람을 설복하면 천자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 황복(荒服)에서도 왕이 나온다(舜舞幹戚, 荒服來王)’, ‘군주가 남풍(南風)처럼 따사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해진다(舜歌南風, 天下大治)’와 같은 생각은 수당(隋唐)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⁹⁾ 양렌성(楊聯陞)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체 중국 역사를 관찰하게 되면 다양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기에, 정도가 다르게 때로는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에서 만들어진 신화.”라고 지적했다.¹⁰⁾

또 다른 일본학자는 소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책봉 관계의 출현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진북조(魏晉北朝) 시대 가야흐로 중원 정국이 중요하던 때 고대 일본 및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국가는 이 시기에 중원에 조공을 하고 중국의 관직을 얻음으로써 소위 책봉관계를 형성했다. 이들 정권과 중원 왕조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관계 수립은 화하문화(華夏文化)의 유입에 도움이 되었다.¹¹⁾ 따라서 이때부터 화하문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획득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다. 실제로 왜5왕이든 고구려, 백제이든 대부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관직의 명칭을 정해서 중국 왕조에 승인과 책봉을 요구했다.¹²⁾ 이는 소위 책봉 관계가 책봉을 받는 측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한다. 반대로 중국에 있어서는 평화 공존의 국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통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련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여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향후 한중일 등 동아시아 각국 학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는 관련 역사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 왕샤오푸(王小甫) 편집 『당나라 전성기 시대와 동북아 정국』, 상하이사서(辭書)출판사(2003), p.3

10) 양렌성, 『역사에서 본 중국의 천하질서』, 싱이텐(邢義田), '식화월간(食貨月刊)' (타이베이) 복간(復刊) 2권 2판 (1972)

11) 參見(일)·이성시,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이와나미(岩波)서점(도쿄)(1998)

12) 호리 토시카즈, 『수당제국과 동아시아』, 한성(韓升)·류젠잉(劉建英), 란저우(蘭州)대학출판사(2002), p.4

둘째,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오늘날 사학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근대 이후 등장한 것이며 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졌고 그 중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국가와 민족이다.

‘국가’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의 이해로 풀이하면 국가는 국토, 국민(민족), 정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정된 영토 범위 내에 국민(통상 동일 민족 혹은 동질감 소유)이 살며 국민이 합법적인 정치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인식은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제창한 것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이러한 체계에서 국가의 영토, 국민은 고정화된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영토와 국민은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 서술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밝힐지는 각국 역사학자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다. 이웃 국가 간 역사적 영토의 확장/축소 변화는 상호 영향 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변화를 서술할지는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야기된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지역의 특징에 적합한 역사적 국가 정의를 찾아야 한다.

셋째, 민족과 민족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서구에서 생겨났으며, 유럽 자본계급이 민중을 동원해 봉건통치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뚜렷한 혁명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이후 동양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운동과 결합되어 이러한 혁명적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종족 민족론’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언어, 문화, 체질상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민족 개념이 민족 역사 연구에 응용되면서 민족 ‘원초론’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 역사를 좁은 틀에 가둬놓았다.

그러나 국제민족사회학, 문화인류학계의 논의에 따르면, 소위 ‘민족’의 개념에 대해 논쟁 중이다. 초기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문화론이 주를 이뤘고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객관론, 기반론 등이 있다. 프레드릭 바스(Fredrick Barth)는 “문화론자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을 민족으로 간주한다. (1) 생물학적으로 강력한 연속성을 갖는다. (2) 기본적인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 형식상의 공개적인 통일을 실현한다. (3) 교류와 상호작용의 영역을 조성한다. (4) 동질감과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구성원 자격을 갖춰야 기타 동일 계층을 보유한 집단과 다른 민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 ‘주관적 동일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련 문헌에 대한 사학 연구가 미흡한 경우 문화론(객관론)은 소위 ‘자체 동일시와 타인 인정’을 공통의 문화적 특징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 국제 민족학계(사회인류학계)는 민족문화론, 원초론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고 주관적인 동일시를 부각시키며 선천적이지 않은 개체적, 주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조정되는 동일시가 민족의 의식 형성, 발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네 가지 민족관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경계론’으로, 민족이 특정 언어, 문화, 체질적 특징의 종합체가 아닌 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주관적인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집단의 주관적 동일시(민족 범위)는 집단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며 집단의 경계선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집단 동일시 가운데 민족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범위의 ‘집단’이다. 이러한 주관적 민족 범주의 형성으로 특정 정치/경제 환경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자기 호칭 및 민족 기원의 역사로 내부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집단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타인을 배제하며 체질, 언어, 종교 혹은 문화적 특징을 주관적으로 강조한다. 내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의 범위도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혹은 전체 집단의 동일시도 변하게 되었다.¹⁴⁾ 두 번째는 도구론이다. 족칭과 본적은 원초적이거나 없어서는 안 될 신분이 아니라 실리적인 상호작용 환경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직업, 계급, 본적, 성별 등 신분에 의해 불시에 교체되고 집단 동일시를 일종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간주한다.¹⁵⁾ 집단 지도자와 엘리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화 집단을 군중 동원의 장소로 이용하고 그들의 권력과 자원 경쟁의 지원군으로 삼는다. 그들은 집단 군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계급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13) 프레드릭 바스, 『민족과 민족문화』, 가오충(高崇) 역, 쉬제순(徐傑舜) 편집, 헤이룽장인민출판사(2006), p.43

14) 왕밍커(王明珂), 『화하의 주변지역』, 사회과학문헌출판사(2006), p.76-77

15) 저우촨빈(周傳斌), 『개념과 패러다임-중국민족이론 일백년』, 민족출판사(2008), p.212

알기 때문이다.¹⁶⁾ 세 번째는 상상론이다. 두 사람이 상대가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고 서로 인정하면 그들은 한 민족에 속한다. 바꿔 말해 민족은 사람을 창조하고 민족은 사람의 신념, 충성심, 단결의 산물이다. 만일 어떤 유형의 사람(예컨대 특정 영토에 사는 사람, 특정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공동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고히 인정할 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 된다. 그들을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상호 인정이지 이러한 유형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과 구별하는 기타 공통적 특징이 아니다.¹⁷⁾ 네 번째는 집단-상징주의론이다. 이 이론의 제창자는 객관론과 주관론의 편파적인 면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집단-상징주의는 주관적 요인이 집단의 연속, 민족 형성, 민족주의 영향에 미치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객관적’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을 자신의 분석 범위 밖으로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 가치, 감정, 신화, 상징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을 더 중시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과 민족주의 ‘내재적 세계’에 진입, 이해를 추구한다.¹⁸⁾ 집단-상징주의론은 동일시를 통해 민족을 형성하고 상징을 통해 동일시를 강화하므로 민족 발전의 실재와 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인식을 토대로 민족사 연구 과정에서 객관론, 원초론의 잘못된 영향을 버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세상에 단일 종족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은 거의 없다. 오늘날의 민족은 역사 변천 과정에서 지속적인 집단 융합 발전과 장대하게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융합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원초론에서 출발하는 배타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한다.

2. 일부 역사적 집단은 흥기, 발전, 변화의 과정 후 다른 집단에 융합되며 그 역사는 후자에 의해 지속된다. 그러나 진입을 받아들인 집단의 경우 전체 진입도 있고 부분적인 진입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온 역사 집단의 경우 그 역사는 현재의 민족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16)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홍이(葉江譯), 상하이세기출판그룹(2006), p.58

17) 어니스트 겔러(영국), 『민족과 민족주의』, 한홍이(韓紅譯), 중앙편역출판사(2002), p.9

18)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홍이, 상하이인민출판사(2011), p.60

넷째, 국제적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성과 유사하게 유럽에도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존재한다. 오랜 기간 유럽 각국도 공동의 역사 서술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성공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발제문

有关化解东亚历史分歧的学理思考

范恩实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东北与北部边疆研究室副主任^{*} 副研究员[°]

毋庸讳言，今日东亚各国学界，在对若干历史问题的认识上，存在一定的分歧。在学术研究中，出现认识分歧是正常现象，然而所谓东亚历史分歧，却有着不正常的一面：其中有些并不属于学术范畴，有些虽然属于学术范畴，但其影响却已经大大超出学术范畴。特别值得注意的是，一些分歧问题甚至破坏了有关国家间关系的正常发展，成为东亚各国开展区域合作的重要障碍。我想，这也是今天，在这样一个以加强环黄海周边政府之间的互相交流与和平发展为目标国际学术会议上，特别安排一个专题，研讨解决历史分歧的策略的原因。借此机会，我也谈一谈对这一问题的思考，提出我的一些想法，与大家共同讨论。

总的来说，所谓历史认识分歧，主要由学术、政治和情感三方面因素造成，但是，在不同问题上，这三方面因素所发挥的作用是有所不同的。在东亚历史认识分歧方面也是如此，因此我们的应对策略也必须是有针对性的，不能一概

而论。我认为，东亚各国学界在历史问题上的认识分歧，可以分作三大类，因此解决历史分歧的途径也应该分别考虑。

第一类，是近现代史上的问题。一方面，这类问题史料充分，史实清楚，基本的结论不容质疑，所谓分歧，主要由学术以外，即政治和情感因素造成；另一方面，这类历史问题距离当代最近，对当代东亚各国间关系影响极大，因此也必须引起我们的足够重视。例如中韩与日本有关二战历史的系列认识分歧。

基于这样的判断，我认为这类分歧的解决，主要是通过政治协商，以及民间团体和专业学者的共同努力，确保有关国家在政治导向上，在教育和宣传领域，形成并保持正确的认识。在这方面，前人已经有很多讨论，达成了一定共识并在实践中取得了重要成果。例如 2002 年 3 月，中日韩三国的民间团体和历史学家在中国南京国际学术会议上决定，共同编撰可供三国中学生使用的近代现代历史教材。由 23 名韩国学者、17 名中国学者和 14 名日本学者组成的共同编撰委员会随后召开了数十次国内外会议，终于解决了有争议的历史阐述。共同编撰委员会在书中指出，“为了创造东亚的光明未来，三国学者经过 3 年多的共同努力证明了在尊重各自固有历史认识的同时，可以达成对历史的共识”。目前，“中日韩三国共同历史编纂委员会”已经出版了两本书籍，分别是 2005 年的《东亚三国的近现代史》，以及 2012 年的《超越国境的东亚近现代史》。据悉，该委员会正在编写一部教科书，预期 2020 年能够完成。可以说此项工作已经取得了突出的成就。当然，这类共同编写的历史书，甚至是历史教材如何深入到相关社会之中并发挥应有的影响力，还有待各方面的共同努力，其效果也有待时间的检验。同时还必须认识到，由于此类分歧源自政治和情感因素，只要适宜于其发生、发展的政治土壤、社会风气存在，就很难将其根除，因此我想，反对这类错误的历史认识将使一项长期、艰巨的工作。

第二类，是距今有一定的年代距离，史料相对充足，但是由于史料记载上存在一些争议，因此造成学术分歧。当然，其中也有一些学术以外的因素的参与，但是由于史实基本清晰，可供发挥的空间有限，同时年代的相对久远，又

使这种脱离史实的发挥缺乏足够的社会吸引力，因此主要分歧仍保持在学术范畴之内。

例如有关清代中朝划界的研究，关于图们江江源究竟是哪一条水，就存在一定的认识分歧。不仅是中韩学界间，中国学界内部也有一些不同认识。当时，清朝派出查边的穆克登在长白山江源立碑，即“穆克登碑”，该碑对于理解清代中朝边界位置至关重要。李花子著《中朝边界的形成及特点——以明清为中心》，详细梳理了明清时期中朝边界的形成过程。包括鸭绿江、图们江边界的逐步形成，长白山地区边界线的形成，1885年（光绪十一年）第一次勘界，1887年（光绪十三年）第二次勘界。作者认为，1712年（康熙五十一年）穆克登所确定的边界，应以天池东南约5公里的立碑处为标志，西边以鸭绿江源为界，东边以黑石沟与图们江源（红土山水）为界；而从立碑处到图们江源的无水地段，则设置了石堆、土堆、木栅等作为标记¹。倪屹著《穆克登碑原址考证》，从朝鲜的相关记载分析，确定穆克登勘定的土门江源是发源于长白山的石乙水或红土山水，其所立石碑最初位置是在发现位置长白山天池南麓而不可能是在小白山²。与上述观点不同，陈慧著《清代穆克登碑初立位置及图们江正源考论》，根据相关史料记载，结合图们江源的地理面貌，确定穆克登勘定的图们江正源是小红丹水³。2011年，陈慧著《穆克登碑问题研究：清代中朝图们江界务考证》⁴与李花子著《明清时期中朝边界史研究》⁵相继出版，为相关问题的进一步深入讨论奠定了基础。

在1887年第二次勘界过程中，朝方又提出中朝边界的土门江应为今中国境

¹ 《黑龙江社会科学》2015年第2期。

² 《北方文物》2012年第2期。

³ 《清史研究》2009年第4期。

⁴ 中央编译出版社，2011年。

⁵ 知识产权出版社，2011年。

内的海兰江，而今图们江时称为豆满江，与土门江为两水。这样一来，又造成海兰江与图们江之间的领土纠纷，又称“间岛问题”。尽管在 1887 年勘界过程中，朝方已认同土门、豆满、图们为一江，但是因图们江源之争而未能签订正式界约，因而也给“间岛问题”留下了制造分歧的空间。但是这种观点严重偏离历史事实，目前已为中韩主流学界所摒弃。

总的来说，要解决这类史实相对清晰，主要分歧在学术层面，政治、情感因素虽有参与，但是空间不大的历史分歧问题，主要还是在学术层面，并且以基本史实的考辨为主要突破口。

第三类，与上述两类不同，还有一类历史分歧，它产生的原因是介于上述两类之间：首先它也是学术研究上的分歧，但是不同于对具体历史问题的讨论，这一类分歧主要表现在对历史的定性论述上，或者称作史论。而史论本身，正所谓见仁见智，由于研究者的史观、史识、史才的不同，加上外部因素的影响，如身份地位、时代背景等等，得出的结论也会千差万别。其次，此类问题的尖锐化，主要还是根源于政治因素和情感因素的作用，但是由于在学术层面就存在难以评判的情况，因此这些政治因素、情感因素是否正确、是否合理也就难以简单评判。例如中韩学界之间有关古朝鲜、高句丽、朝贡册封等问题的分歧。

从化解分歧的角度说，此类问题较比前两类更为复杂。需要注意的是，尽管这类分歧的尖锐化根源于政治因素、情感因素，但是我们却不能被表象所迷惑，因为这里的政治因素、情感因素是附着在学术分歧之上的，它们是否正确、是否合理不易做简单评判。基于此，我们显然不能把解决此类分歧的首要目标对准政治因素、情感因素，个人认为，如果我们纠缠于此，非但无助于解决问题，反而会使问题更加复杂。

实际上，解决此类问题，还是要从产生分歧的学术层面入手。当然，上文也已经提及，这种史论类的分歧见仁见智、难分高下。中国有句俗语，叫“文无第一，武无第二”，如果用来不很恰当地比拟历史研究的话，考证可以算作武的部分，谁的证据充分，谁就是第一，史论则是文的部分，只要是根据史料发

表的议论，我们很难说谁的论述更高明。当然，必须强调指出，这里讲的史论，是基于史实发表的议论，绝不包括那些罔顾事实、臆想连篇的奇谈怪论。回过头来说，在史论难分高下的情况下，我们又如何化解分歧呢？我想我们恰恰可以利用史论的这种并非唯一真理的特点，通过沟通、交流，对各自的结论加以调适，最终形成某种共识，或者达成相互的理解，从而使分歧进入可控的状态。具体而言，可以从以下几个方面入手：

首先，面对此类历史认识分歧，应该提倡相互尊重、相互理解、求同存异、面向未来。

相互尊重，是指这类历史分歧，主要是基于史实的史论歧义，各方的论述，都有自己的学理基础，对此应该给予学术的对待，不论是质疑，还是批评，都应该遵循学术规范，而不应该进行贴标签式的非学术话语的批判。例如说哪位专业的历史学者“歪曲”历史，我觉得是极不合适的。

相互理解，是指真正从学术层面分析对方的观点，思考对方的关切，多做换位思考，己所不欲、勿施于人。

求同存异，是指尊重学术规律，不苛求观点的完全一致，君子和而不同，给彼此留有回旋的空间，才有交流、讨论、趋同的可能。

面向未来，是指要有开阔的心胸，不背不必要的历史包袱。东亚数千年的历史长河中，经济、文化的紧密联系始终是主流，应该让历史成为区域合作的基础、发展友谊的桥梁。对于那些存在分歧的部分，只要都是从学术出发，通过“激烈”的交锋，最终获得的也应该是学术友谊的深化。

我认为，东亚共同拥有儒家文化传统，儒家道德文化的精髓是中庸，中庸的核心是尚中、尚和，如果我们大家能以中庸之道面对历史认识分歧，必能找到化解分歧的路径。

其次，加强学术层面的交流。

这种交流有两个方面的好处：其一，有利于加强基础研究，从根本上推动相关问题认识的进步。其二，通过加强学术交流，可以更好地沟通学术思想，表达己方关切，寻求适中之道。

特别是从加强基础研究的角度说，学术交流必不可少。实际上，所有的这类问题，都存在基本史实认识方面的缺憾，这也是史论分歧产生的重要原因。例如中韩学界共同关注的高句丽问题，就存在很多认识上的薄弱环节。简单举两个例子：高句丽族的起源问题，目前的主流观点，仍然根据文献记载，认为是夫余王子南下貊地建国。但是也有学者对于这部分文献内容表示质疑，毕竟它属于建国神话的范畴，加上与夫余自身的建国神话情节雷同，因此真实性值得怀疑。更为重要的是，迄今为止，还没有发现夫余南下建国的充分的考古资料证据。再举一个例子，高句丽迁都平壤初期，与同样进入朝鲜半岛大同江、载宁江流域的前燕移民之间的关系问题，目前也存在较大争议，比如德兴里壁画墓的壁画与墨书题记，表现了前燕移民与高句丽政权之间怎样的关系？甚至一些壁画墓的墓主人也存在争议，比如安岳三号墓，是冬寿，还是高句丽故国原王？如果不进行全面系统的研究，是不可能得出准确的结论的。由此也影响到对高句丽族系源流、历史地位的判断。

而要深化基础研究，就需要加强国际学界的合作，为什么这么说呢？除了一般意义上的增加研究力量，拓展研究视野以外，还与此类问题的特殊性有关。因为这类引发国际学界分歧的历史问题，本身也具有国际性。例如高句丽问题，首先它的文献史料，都是汉文写成，因此在解读史料方面，中国学者自然有一定的优势；其次，高句丽鼎盛时期，其分布地域在今天中国、朝鲜，以及韩国北部的一小部分，从考古发现材料来说，来自上述三个国家，要充分利用这些材料，就需要三国学者的紧密合作。再比如朝贡、册封问题，除了中国学界的中心—边缘视角，还需要韩、日等国学界边缘—中心，以及次中心—边缘的视角。

第三，在学术对话过程中，应该加强对关键性问题的讨论。

如果从学术层面思考第三类历史认识分歧，有一些关键性的问题需要加强研究，特别是各方学者共同参与的研究。

其一，加强对东亚历史上的政治共通性问题的研究。

东亚地区各国的历史，是有着紧密关联性的历史。这种关联性除了一般意义上的经济、文化交流以外，还涉及到一定的政治关系。而对于这种政治关系的理解，也是造成今日东亚历史分歧的一个重要原因。

梳理以往学界的相关研究，对于这种政治关系的认识，有一个重要的视角，即由日本学者所发明，后为中国、韩国，甚至一些欧美学者所丰富的“体制论”。据宋成有先生统计：“关于古代东亚或东北亚国际体系概念的界定，……至少有日本学者西嶋定生的‘册封关系体制说’，堀敏一的‘东亚世界体系说’，谷川道雄的‘古代东亚世界说’，安部健夫的‘四方天下说’，栗原朋信的‘内臣外臣礼法说’，藤间生大的‘东亚世界说’，信夫清三郎的‘华夷秩序说’，滨下武志的‘中华帝国朝贡贸易体系说’，韩国学者全海宗的‘朝贡制度说’，美国汉学家费正清称之为‘中华世界秩序’，大陆学者何芳川的‘华夷秩序说’，香港学者黄枝连的‘天朝礼治体制说’，台湾学者张启雄的‘中华世界帝国体系说’等等”¹。

从目前学界的研究看，对于“体制论”有三种态度。

第一种观点认为是在中国积极经营下形成的“体制”、“体系”、“秩序”甚至“圈”，因此是古代中国地区霸权主义的体现，甚至用它来影射今天中国崛起后的发展方向。

第二种观点否定这种“体制”、“体系”、“秩序”甚至“圈”的实际意义，

¹ 宋成有：《东北亚传统国际体系的变迁——传统中国与周边国家及民族的互动关系述论》，（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所政治外交组，2002年，第2-3页

认为它们不过是古代东亚地区的一种外交形式，与中国的政治统治没有任何关系。

第三种观点，承认“体制”、“体系”、“秩序”甚至“圈”的存在，但是指出它与西方的殖民体系的根本区别，以及在促进东亚世界整体发展过程中的积极作用。有中国学者认为：“‘诸番入贡，华夷一统’的东亚封贡体系，与西方的殖民主义体系有着根本的区别。中国并非殖民主义国家，从未将周边地区划为殖民地，进行殖民统治。两者之间并不存在实际上负有条约义务的政治从属关系。明代以后形成的‘宗藩制度’也不同于西方殖民主义体系中的宗主国与保护制度。中国一般不干涉藩属国的内政，经济上的朝贡关系只具有象征性的意义。中国通过更多的回赠，使之变成互通有无的通商与文化交流”¹。还有学者认为：“中国传统文化在对待与周边国家及民族关系时具其特有的尚德抑武、以德服人观点，如‘舜舞干戚，荒服来王’、‘舜歌南风，天下大治’之类，这一点在隋唐时代也不例外”²。杨联陞先生更是直接指出：“对整个中国历史加以观察以后，即可以发现这个多面的中国中心之世界秩序，他是在不同的时间，从许多程度不一，有时几近于零的事实上，建立起来的神话”³。

也有日本学者指出，所谓的中国与东亚国家间册封关系的出现，并非出自中国的主动争取。魏晋南北朝时期，正是中原政局动荡之时，倭及高句丽、百济、新罗等国均在这一时期向中原入贡，取得中国的官阶、官职，形成所谓册封关系。这些政权与中原王朝保持联系，根源于他们的建立多得益于华夏文化的传入⁴，因此自始即有获得华夏文化政治、经济、文化资助的愿望。而这一时期以更为谦卑的姿态提出请求，“应该说，这都是各国出于自身的需要而自主选

¹ 俞正梁等：《全球化时代的国际关系》，复旦大学出版社，2000年，第7-8页。

² 王小甫主编：《盛唐时代与东北亚政局》，上海辞书出版社，2003年，3页。

³ 杨联陞著，邢义田译：《从历史看中国的天下秩序》，（台北）《食货月刊》复刊2卷2期，1972年。

⁴ 参见[日]李成市：《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日：东京）岩波书店，1998年。

择的行动。从实际情况来看,无论是倭国的五王,还是高句丽、百济,大多是他们自己拟定具体的官称,……向中国王朝提出来,要求获得承认和册授”¹。这说明,这个所谓的册封关系对受封者具有政治、经济、文化诸方面的重要意义;相反,对中国来说,则更多的是代表一种和平相处的局面。

显然,如何理解这种政治共通性,对于相关史事的评价结论是完全不同的。如果未来能够通过中、韩、日等东亚各国学界的共同努力,达成一个大致相同,或者主要结论相近的认识,对于相关的历史分歧问题的消弭将起到关键性作用。

其二,深化“国家”定义的古今对接。

今天,我们从事史学研究,尽管研究对象都是历史上的事情,但是所使用的定性名词却都是近代以来出现的,且主要是从西方传到东方的,这里面影响最大的是国家和民族。

国家这个词,按照今天的理解,是由国土、人民(民族)和政府三个要素组成的。当在一个固定的领土范围内居住着一个人民(经常是同一民族或有共同的认同感),而在这个人民中又行使着一个合法的政治权力时,便存在着国家。这种国家意识,是由兴起于欧洲的威斯特伐利亚体系所倡导的,目前已经成为全世界的共识。在此体系之下,国家的领土、人民都是固定化的。但是从历史的角度看,国家的领土和人民又都是变化的,如何理解这种变化,又如何能在历史叙述中阐明这种变化,是各国历史学家面临的共同任务。而在毗邻国家间,历史领土的伸缩变化又是一种相互影响关系,彼此按照什么标准来阐述这种变化,是造成历史认识分歧的重要原因。要化解由此产生的历史认识分歧,就需要从探讨国家定义的古今对接入手,寻找到适合区域特征的历史国家定义。

其三,深化对民族与民族主义的认识。

一般认为,民族主义兴起于西欧,是欧洲资产阶级动员民众,反对封建统

¹ [日]堀敏一著,韩升、刘建英编译:《隋唐帝国与东亚》,兰州大学出版社,2002年,第4页。

治者的产物，本身具有鲜明的革命色彩。其后，在向东方传播的过程中，与亚非拉殖民地争取独立的运动相结合，强化了这种革命色彩，演化为“种族民族论”，这种民族概念强调语言、文化、体质上的一致性。在将此类民族概念应用于民族历史研究时，又形成了一种民族“原生论”，从而将民族历史封闭起来。

然而，根据国际民族社会学、文化人类学界的讨论，何谓“民族”还在争论之中。目前看，早期的民族定义主要是文化论，与此相类的还有客观论、根基论等，弗雷德里克·巴斯指出：文化论者认为，族群一般被理解为这样的一群人：（1）生物上具有极强自我延续性；（2）共享基本的文化价值，实现文化形式上的公开的统一；（3）组成交流和互动的领域；（4）具有自我认同和被他人认可的成员资格，以形成一种与其他具有同一阶层的不同种类¹。由于“主观认同”不易把握，特别是在缺乏相关记载的史学研究中，因此文化论（客观论）最后往往把所谓“自我认同和他人认可”转化为某种共同的文化特征。20世纪50年代以来，国际民族学界（社会人类学界）已经开始对族群文化论、原生论加以检讨，突出主观认同，特别是非先赋的，个体的，能够因主客观条件而调整的认同对族群意识形成、发展、嬗变的影响。由此产生了四种族群观。其一为边界论：“民族被视为一个人群主观的认同范畴，而非一个特定语言、文化与体质特征的综合体。人群的主观认同（族群范围），由界定及维持族群边界来完成，而族群边界则是多重的、可变的、可被利用的。在多层次的族群认同中，民族是最一般性的、最大范围的‘族群’。这个主观民族范畴的形成，是在一个特定的政治经济环境之中，人们以共同的自我称号及族源历史，来强调内部的一体性与设定族群边界排除他人，并在主观上强调某些体质、语言、宗教或文化特征。随着内外环境的变化，可共享资源的人群范围也随之改变，因此造成个人或整个族群的认同变迁。”²其二为工具论：“族籍并非原生的、不可或缺的身份，而是在功利性的互动场景中变化的，不时会被职业、阶级、乡籍、性别

¹〔挪威〕弗雷德里克·巴斯著，高崇译：《族群与族群文化》，收入徐杰舜主编《族群与族群文化》，黑龙江人民出版社，2006年，第43页。

²王明珂：《华夏边缘》，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年，第76-77页。

等身份替换,从而基本上将族群认同看作是一种政治、社会或经济现象。”¹“族群领导人和精英们实际上是利用他们的文化群体作为动员群众的场所,并且作为他们竞争权力和资源的赞助者,因为他们发现利用族群群体比利用社会阶级更有效。”²其三为想像论:“当且只当两个人相互承认对方属于同一个民族,则他们同属一个民族。换言之,民族创造了人;民族是人的信念、忠诚和团结的产物。如果某一类别的人(比如某个特定领土上的居民,操某种特定语言的人),根据共同的成员资格而坚定地承认相互之间的权利和义务的时候,他们便成为一个民族。使他们成为民族的,正是他们对这种伙伴关系的相互承认,而不是使这个类别的成员有别于非成员的其他共同特征。”³其四为族群一象征主义论,这种理论的倡导者意图弥补单存客观论与主观论的偏颇:“历史族群一象征主义特别强调主观因素在族群延续、民族形成和民族主义影响中的作用。这并不意味着它视‘客观’因素为当然或将它们排除在自己的分析范围之外;而是给予主观的因素如记忆、价值、情感、神话和象征等以更多的重视,并且由此而寻求进入并理解族群和民族主义的‘内在世界’。”⁴个人认为,族群一象征主义论更符合民族发展的实际,即通过认同形成民族,通过象征强化认同。

基于上述认识,我认为在民族史研究过程中,应该摒弃客观论、原生论的错误影响,充分考虑以下两点:

1.世界上很少有单一种族血统的民族,今天的民族都是在历史演进过程中,通过不断的族群融合发展、壮大而最终形成的,对于这个融合过程,应该给予客观的描述,不能从原生论出发,自始便做排他性的叙述。

¹ 周传斌:《概念与范式——中国民族理论一百年》,民族出版社,2008年,第212页。

² [英]安东尼·史密斯著,叶江译:《民族主义——理论,意识形态,历史》,上海世纪出版集团,第2006年,58页。

³ [英]厄内斯特·盖尔纳著,韩红译:《民族和民族主义》,中央编译出版社,2002年,第9页。

⁴ [英]安东尼·史密斯著,叶江译:《民族主义——理论、意识形态、历史》,上海人民出版社,2011年,第60页。

2.有些历史族群经过兴起、发展和嬗变的历程后，融入到其他族群之中，其历史则为后者所接续。但是，融入进来的族群有集体融入，也有部分融入，对于部分融入的历史族群，它的历史就不应该为任何一个当代民族所独占。

其四，充分借鉴国际经验。

与东亚历史共通性类似，欧洲各国在历史上也存在着千丝万缕的联系，长期以来，欧洲各国也都在致力于构建共同的历史叙述。这方面的成功经验，应该为我们所吸纳。